

맞춤법 · 표준말과 국어 생활

히 응

(한글학회 이사장 · 국어학)

한헌샘 주 시경 선생은 한 나라의 말과 그 나라의 운명은 그 흥망성쇠를 같이한다고 하고, 또 나라말을 적는 글자는 그 말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그 말을 닦는 기계라고도 하였다. 곧 말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쓰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오르내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적는 글자에 따라 다듬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말과 글은, 19세기 끝시기까지 오천 년의 문화 민족답지 않게 묵정발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우선 말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어떤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한 말을 적는 글은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리 적히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세운 지 오천 년이나 되었지만 그 동안에 우리에게서는 우리 말을 돌보지 않고 한문 배우기에만 바빴고, 세종 임금의 한글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한자에만 정신이 팔려 이 글자를 다듬어 쓸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다가 외국이 우리 땅을 넘겨다보게 되매 비로소 정신을 차려 보았으나 때는 이미 늦어, 드디어 1910년의 큰 모욕을 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 땅을 살살이 강탈하고, 겨레의 정신을 마비시켜 노예근성을 심기 위해 역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고,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에 우리는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리하여 우리 옛 문헌을 정리하고, 말을 지키고 다듬는 데 힘을 기울이려 했다.

말을 지키고 다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모이(사전)를 만드는 일이다. 1910년부터 ‘조선 광문회’에서 주 시경, 김 두봉 선생들이 중심이 되어 ‘말모이’를 만들기 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 원고는 ‘계명 구락부’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다.(이 ‘말모이’의 일부 원고가 지금 남아 있다.)

조선조 말기 1908년에 주 시경 선생은 그 동지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 연구 학회’를 만들었는데, 이 학회가 ‘배달말글 묻음’, ‘한글모’로 이름을 바꾸면서 1910년 이후까지 그 활동을 계속하다가 주 시경 선생이 돌아가시고 김 두봉 선생이 나라 밖으로 망명함에 미처 1917년에는 그 활동이 중지되었다. 그리다가 1921년 ‘조선어 연구회’를 다시 세우기에 이르렀는데, 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한글 학회이다.

여기에 모인 동지들이 중심이 되어 1929년에는 매우 강력한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만들어졌고, 1930년에 조선어 연구회와 그 일을 분담하였다가 다시 연구회가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사전을 만들려면 그에 앞서는 일이 있음을 알게되었으니, 하나는 한 말을 적는 글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과, 또 하나는 한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말은, 그 중에 하나를 ‘좋은말’로 가려서 거기에다 뜻풀이를 하고, 다른 말에는 풀이를 거둬하지 않고, 그 ‘좋은 말’로 가 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학회에서는 사전 만들기를 계속하는 한편, 말 적는법(맞춤법)의 통일과 ‘좋은 말’ 정하기를 서두르기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맞춤법의 원리는 주 시경 선생의 연구로 밝혀졌고, 그 통일 맞춤법의 실천도 주 시경 선생이 앞장서서 계몽한 일이 있었으므로, 학회에서는 이 원리를 이어받아 그것을 더 연구하고, 이론에만 기우리지 않도록 절충하기도 하여, 1933년에는 한 ‘통일안’을 얻어 공포하였는데, 그 원리는 각 형태소를 나누어 적되, 그 원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 통일안에서, 좋은 말(표준말)을 정하되 지금 서울의 중류 사회의 말씨로 하고 끝이어서 이런 말씨를 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지방 사

람들도 함께 모여 1936년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국민 앞에 내어 놓게 되었다.

글 적는 법은 우리 말만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사전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도 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회에서는, 다른 학회의 협력을 얻어 10년이나 걸려, 1941년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펴내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말모이를 만드는 기초가 다듬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맞춤법 통일, 표준말 정하기, 외래말 적기 통일——은 사전을 만드는 데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 우리 겨레의 말살이 글살이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며, 국어 교육과 그 밖의 모든 다른 방면의 교육에 없지 못할 기반이 되는 것이다.

글이 통일되지 않은 데서 겪는 고통은, 우리가 글자 통일 이전의 책을 읽는 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뜻을 나타내는 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는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감정을 북돋우는 큰 원인이 된다. 우리가 한 겨레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가지 공통된 말을 써야 하는데, 여기 뽐히는 말은 서울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품위 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살이 글살이를 이끌어가는 힘은 교육이니, 교육이 이런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글쓰기의 통일과 표준말의 제정은, 우리 겨레의 기나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볼 때는 뒤늦은 느낌이 있으나, 그래도 해방 전에 이런 일을 해 놓았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맞춤법은, 매우 복잡한 언어를 규칙에 따라 적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표준말도 역시 완전한 것을 결정해 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뿐 아니라 맞춤법이나 표준말을 정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고, 그동안에 해방, 6·25가 있었고, 여러 차례의 정치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변동이 말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맞춤법, 표준말, 외래말 적기를 다시 손대기 시작하여 거의 결정 단계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글이나 말의 규범은 쉬 바꾸어 지지도 않는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일이다. 이런 변동은 멀쩡한 새 책을 '현 책'으로 만들며, 젊은 사람들을 '구세대'로 만들 우려가 있

으며, 이리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여기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지난날의 업적이 한 민간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국가적인 권위를 여기 부여하기 위해 고치려는 생각은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 어떤 낱자를 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수정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수정안은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말과 글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양쪽 사람들이 만나야 할 것인데, 그 때에 토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맞춤법과 표준말은 1945년 해방 바로 뒤의 그것이어야 한다. 이미 달라진 두 쪽의 그것으로는 고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5년의 맞춤법에는 남북이 없었으며, 그 때의 국어 교육은, 남북이 다, 이 맞춤법에, '36년의 표준말이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